

정지용 시의 여성상 연구

조제웅*

|| 차례 ||

1. 서론
2. 가족애의 상징
3. 에로티시즘의 형상화
4. 순수한 동심의 상징
5. 결론

【국문초록】

정지용의 시에 등장하는 여성은 가족애와 동심을 상징하며, 에로티시즘으로 형상화되었다. 가족애는 어머니, 아내, 누나, 누이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되었다.

동심을 상징하는 여성은 누나와 소녀, 소꿉놀이 하는 아주머니로 나타난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

에로티시즘으로 형상화된 여성은 꽃에 비유되어 성적 충동을 강렬하게 드러내며, 성숙한 여성의 심리 변화를 통하여 성적 본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주제어 : 가족애, 에로티시즘, 동심, 어머니, 아내, 누이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서론

시인의 작품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시사에서 정지용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된 시인도 드물 것이다. 이것은 그가 우리 현대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902년 충북 옥천에서 출생하였으며, 3권의 시집 『鄭芝溶 詩集』(1935), 『白鹿潭』(1941), 『지용 詩選』(1946)을 남기고 6·25전쟁 당시 납북되었다.

정지용에 대한 연구는 한국 모더니즘 시의 선도자¹⁾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 그의 시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유리창’²⁾, ‘나무’³⁾, ‘바다’⁴⁾, ‘<밤>과 <램프>’⁵⁾, ‘색채어’⁶⁾, ‘집과 나무 와 산’⁷⁾ 등의 테마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테마를 통한 작품의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작가의 의식 세계를 탐구할 수 있으며, 연구 영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여성상을 테마로 하여 정지용의 시를 연구하고자 한다.

-
- 1) 문덕수, 『정지용론』,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시문학사, 1981.
고명수, 『정지용론』, 『한국 모더니즘 시인론』, 문학아카데미, 1995.
 - 2) 이승원, 「정지용 시 『琉璃窓』 읽기의 반성」, 『문학교육학』 제16집, 역락, 2005.
 - 3) 손종호, 「정지용 시 『나무』의 기호학적 분석」, 『문예 시학』 제7집, 문예시학회, 1996.
 - 4) 강현국, 「현대시에 나타난 『바다』의 연구 - 정지용 초기시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제4집, 문학과 언어학회, 1983.
이상오, 「정지용 초기시와 “바다” 시편에 나타난 자연 인식」, 『人文研究』 제49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5) 손병희, 「정지용 시의 <밤>과 <램프> 분석」, 『문학과 언어』 제12집, 문학과 언어학회, 1991.
 - 6) 박원순, 「정지용 시에 나타난 색채어 연구」, 『비평문학』 제24호, 한국비평문학회, 2006.
 - 7) 정유화, 「『집-나무-산』의 공간기호체계 연구 - 정지용론」, 『우리문학연구』 제25집, 우리문학회, 2008.

시에서 여성상은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정지용은 “여인들은 山果 實처럼 붉 도다. / 바다 에서 주슨 바둑돌 향기 로다. / 暖流 처럼 씻듯 하도다. / 여인들은 洋 에게 푸른 풀을 먹이는 도다. / 소 에게 시내 人물 을 마시우는 도다”, “여인들은 푸르다. 사철나무 로다”(『우리나라 여인들은』)⁸⁾라고 하여 이 땅의 여인들에 대해 사랑과 희망을 갖고 있다.⁹⁾ 그는 여성을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상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그가 시적 대상으로 삼았던 자연과 고향에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지용 시에 나타난 여성상을 통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에로티시즘이 어떻게 작품화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의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여성이 등장하는 그의 시는 36편이다. 여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거나 제목이 여성인 작품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시적 화자가 여성인 『홍시』, 『무서운 시계』 등과 여성의 상징물인 “치마” 등이 나타나는 작품은 여성이 직접적인 시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鄭芝溶 全集』¹⁰⁾ 과 『정지용 詩 126편 다시 읽기』¹¹⁾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2005년 발굴된 시 3편¹²⁾도 참조하였다.

8) 정지용, 『鄭芝溶 全集』1, 민음사, 2010, pp.78-79.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한 본문의 시는 출전을 생략한다.

9) 김은자, 『정지용 시의 現實과 悲哀』, 김은자 편, 『정지용』, 새미, 1996. p.315.

10) 정지용, 『鄭芝溶 全集』1, 민음사, 2010.

11) 권영민, 『정지용 詩 126편 다시 읽기』, 민음사, 2004.

12) 이순옥,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41집, 한국문학회, 2005, pp.64-67.

2. 가족애의 상징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성은 무한한 사랑과 자기희생을 상징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집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녀들의 고통과 역할은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여성은 정지용의 시에서 가족애를 상징하며, ‘어머니’, ‘아내’, ‘딸’, ‘누나’, ‘누이’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정지용은 충북 옥천의 전형적인 농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젊은 시절 중국과 만주를 전전하면서 익힌 한의학을 바탕으로 고향에 돌아와 한 약상을 경영하였다. 처음에는 어느 만큼의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홍수의 피해로 家勢가 기울었고, 그 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가 옥천 공립 보통학교를 마치고 바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¹³⁾

집 떠나가 배운 노래를
집 차저 오는 밤
논스득 길에서 불렀노라.

나가서도 고달피고
돌아와 서도 고달폈노라
열네살부터 나가서 고달폈노라.

나가서 어더은 이야기를
닭이 울도락
아버지께 닐으노니—

기름스불은 짬박이며 듯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고이신대로 듯고

13) 김학동, 『정지용』, 동아일보사, 1992, p.14.

니치대든 어린 누이 안긴데로 듯고
 우스방 문설쑤에는 그사람이 서서 듯고,

-『넛니약이 구절』 1, 2, 3, 4연

인용한 시는 정지용이 1914년 죽향학교(옥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휘문고보에 입학하기 전까지 4년간 서울의 처가 쪽 친척에게서 한학을 공부하던 당시의 생활을 작품화한 것이다.¹⁴⁾ 그는 가난한 삶을 “나가서도”, “돌아와 서도”, “열네살부터 나가서 고달팠”다고 회상한다.

이 시에 등장하는 여성은 어머니와 아내, 어린 누이이다. 화자의 고생담을 어머니는 눈물로 듣고, 아내는 문설쑤에 기대어 듣고, “니치대든 어린 누이”까지도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가족 한 사람의 아픔을 가족 전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가족애를 보여 주는 것이다. 어머니의 눈물에는 객지에서 고생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책감,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다.

정지용이 일본 유학 시절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 (『鴨川』)에서는 “역구풀 육어진 보금자리 / 뚝뚝이 흠어멈 울음”으로 의인화하여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그는 부친이 어려운 살림에도 소실을 얻어 두 집 살림을 하며 집안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소설 『三人』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한다.¹⁵⁾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자식은 “내사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그이들은 머리가 히시다.”(『갈매기』)하여 늙으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타내었다.

정지용은 12살에 동갑인 송재숙과 결혼하였고, 둘 사이에 10명이 넘는 자녀가 태어났지만 4남매만 장성하게 된다. 집안 형편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혼신을 댄 것은 그가 4대 독자였으므로 결혼을 서두른 것도 이유

14) 이석우, 『정지용 평전 : 현대시의 아버지』, 충북학연구소, 2006, pp.38-39.

15)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연구』, 태학사, 1999, pp.20-21.

의 한 축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혼사는 자식을 교육시킬 방법이 막막한 아버지가 부잣집과 사돈을 맺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정략결혼에 가깝다.¹⁶⁾ 정지용은 이러한 아내를 각별하게 여겼다. 그는 일본 유학 후에도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 당시 지식인들은 집안의 강요로 이루어진 조혼을 부정하며, 이혼을 하거나 자유연애를 하였다. 그러나 정지용에게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그가 아내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스방 문설쭈에는 그사람이 서서 듯고”에서 부부의 은은한 정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사람’으로 불리는 아내는 시 「꽃과 벗」에서는 친한 벗으로 비유된다. “아내 같이 어여쁘기에, / 눈 뜨고 지키기 싫지 않았다.”라고 하여 친한 벗과 아내를 정신적인 동반자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세상에 안해와 사랑이란 / 별에서 치면 지저분한 보금자리”(「별2」)일 뿐이다. 부부 사이에는 육체적 사랑보다 정신적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내의 모습은 시 「鄉愁」에서 “따가운 해사살을 등에지고 이삭 짓”고, “아무러치도 않고 여벌 것도 없는 / 사철 밭벗은 안해”로 나타난다. 그리고 “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가 등장한다. 이것은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지만 누이의 머리칼은 ‘전설과 밤과 검은’이라는 4중의 수식에 의해 이 머리카락은 한없이 깊고 어둡다. ‘사철 밭벗은’ 아내란 고향의 가난조차 정답게 할지 모르지만 누이의 묘사와 더불어 그들은 험벗고 슬프다.¹⁷⁾ 그러나 가을걷이를 하는 아내의 모습은 가난한 농촌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신성함과 경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밀레의 그림 “이삭 줍는 여인들”과 “만종”에서 고통스런 농촌의 현실을

16) 이석우, 앞의 책, pp.27-38.

17) 김은자, 앞의 논문, p.304.

연상하지는 않는다. ‘따가운 햇살’과 ‘사철 밭 벗은 아내’는 가난한 농촌과 고통스런 삶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가운 햇살’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곡식을 익게 하는 긍정적인 힘이며, 이 힘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간다. 그 햇살 아래서 일하는 ‘밭 벗은 아내’는 가족들을 위해 땀을 흘리는 건강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인들은 맨발 벗기 를 조하 하도다”(『우리나라 여인들은』)에서 알 수 있듯이 ‘맨발’은 우리 민족의 열정적인 삶과 근면한 생활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노동이든지 예술 행위가든지 놀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빠져든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 특히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삶의 행위이다. 이것은 가족을 위해 일하는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의 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린 누이도 물과 밤의 수식으로 인해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설바다’와 ‘밤을 통하여 소녀의 신비로움과 순결한 처녀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모습은 성숙해 가는 누이에 대한 오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정지용은 4대째 독자였지만 부친이 소설을 두어 이복동생 桂溶과 華溶이 있었으며, 특히 이복 여동생 桂溶을 아끼고 사랑했다. 이러한 남매의 우애는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이어진다.¹⁸⁾ 시 『엽서에 쓴 글』에는 “누나, 검은 이 밤이 다 희도록 / 참한 뉘-쓰처럼 줌시얍. / 海拔 二千呎 이트 산 봉오리 우에서 / 이제 바람이 내려 옵니다.”라고 한다. 자신은 높은 산봉우리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누이에게는 ‘검은’ 이 밤이 다 희도록 자라고 한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심란한 상황과 대비하여 누이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¹⁹⁾ 자신보다는 누이

18) 이석우, 앞의 책, pp.27-28.

19) 이승원, 앞의 책, p.88.

를 더 생각하는 오빠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 시의 5행 “오라범”과 9행 “누나”는 서로 호응이 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조선지광》67호(1927. 5, 88-89쪽)에 발표되었고, 『정지용 시집』에 수록되었으며, ‘누나’라고 지칭하고 있는 한 여성에게 보내는 짝막한 사신에 해당한다.²⁰⁾ 그러나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는 ‘누나’가 아니라 ‘누이’에게 보내는 엽서이다. 그러므로 ‘누나’는 ‘누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매의 정은 시 『그대들 돌아오시니』에서도 일제에 의해 우리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가친척도 흩어졌지만 “어린 오누이”는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고향으로 돌아온다.

시 『曲馬團』에서는 “마흔아홉살의 아버지와 열여섯 살 난 딸”이 나란히 서서 곡마단의 공연을 관람한다. 아버지와 딸의 다정한 모습은 가족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脫衣室에서 애기가 울었다 / 綠色 리본 斷髮머리 찌리가 드나들었다.” ‘단발머리 찌리’²¹⁾는 아기엄마이며, 곡마단의 단원이다. 그녀는 공연 중에도 우는 애기를 달래려 무대 뒤로 뛰어 간다. 공연을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애기를 향해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딸의 다정한 모습과 엄마와 애기의 애처로운 모습의 대조를 통하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지용은 여러 명의 자녀를 잃었다. 그의 父情과 자녀 상실의식이 직간접으로 드러나는 시로는 「紅疫」, 「悲劇」, 「時計를 죽임」, 「琉璃窓 1」, 「琉璃窓 2」, 「發熱」, 「太極扇」 등이 있으며, 이 시들은 1927년에서 1935년 사이에 창작되고 발표된 작품으로 전기적 사실과도 일치한다.²²⁾ 시 「悲劇」

20) 권영민, 앞의 책, p.291.

21) ‘찌리’는 ‘짜리’로 어떤 옷차림을 한 것으로써 그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며, ‘양복 짜리’, ‘장옷짜리’와 같이 쓰이므로 여기서는 ‘단발머리짜리’라고 쓰인 것으로 보지만 이승원은 ‘Jerry(여자 아이 이름)’이라고 한다. (권영민 위의 책, p.749.)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단발머리의 찌리’가 여성이며, 엄마라는 점이다.

22) 장도준, 『정지용 시 연구』, 태학사, 1994, p.107.

에서는 “일찍이 딸하나와 아들하나를 드린일이 있기에 / 혹은 이밤에 그가 禮儀를 가추지 않고 오랑이면 / 문밖에서 가벼이 사양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자식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禮儀”로 드러낸다. 그는 이미 3명의 자식을 신에게 보냈으므로 신에게 “禮儀”를 지켜 더 이상 자식을 데려가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식을 잃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죽은 자식으로 인해 남은 가족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지지만 가족의 죽음은 영원한 그리움이다.

서낭산스골 시오리 뒤로 두고
어린 누이를 묻고 왔오.
해마다 봄바람 불어오면,
남면히 피는 꽃을 심고 왔오.

- 「산소」 전문

이 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작품화하였다.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은 봄바람에 ‘꽃’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된다. “눈에 아름 아름 보고 지고, / 발벗고 간 누의 보고 지고.”(「산에서 온 새」)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이 시에서는 격정적 감정을 정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한다. 이것은 누이의 죽음이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자의 슬픔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이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그리움은 시 「병」에서 시집간 누나에 대한 그리움으로 대치된다. “부형이 울던 밤 / 누나의 이야기—”, “뺨꼭새 울던 날 / 누나는 시집 갔네—”라고 하여 시집간 누나가 들려주던 옛날이야기를 떠올리며, 누나가 떠나고 난 뒤의 허전함과 그리움을 나타낸다.

누나에 대한 그리움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진다. 시 「종달새」

와 「굴뚝새」는 새를 의인화하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어머니 없이 자란 나를 / 종달새 지리 지리 지지리……”(「종달새」)라고 하여 어머니의 부재와 그리움을 종달새를 통하여 환기시킨다. “굴뚝새 / 굴뚝새 / 어머니— / 문 열어놓아주오, 들어오게, / 이불안에 / 식전 내— 채워주지”(「굴뚝새」)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속에서 잠들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담고 있다. 우리는 위험에 빠지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는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강렬해진다.

그러므로 이 시의 1연과 2연에서 ‘어머니—’를 반복하여 부른다. 이것은 화자의 현재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시 「汽車」에서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할머니 / 무엇이 그리 슬어 우습나?”라는 물음으로 나타난다. 할머니의 눈물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가족애를 상징하는 여성은 시 「勝利者 金안드레아」에서 “나라와 백성의령혼”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된다. 이 시는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작품화한 것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의 외로운 어머니 마자 홀로 철화 사이에 숨겨두”어야 했다. 어머니를 향한 가족애를 조국애로 승화시킨 것이다.

정지용은 일본 유학시절 가톨릭에 귀의했다. 1928년 7월 22일 일본 가와라마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재일본조선공교신우회 경도지부 창립 총회에서 서무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조선 유학생들 사이에는 지용이 종교 활동 때문에 졸업이 늦어졌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²³⁾ 시 「臨終」에서도 “달고 달으신 聖母의 일흠 불으기에 / 나의 입술 타게하라”고 하여 어머니에 의한 가족애는 ‘聖母’의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그러므로 가족애를 상징하는 여성의 모습은 인류애를 상징하는 성모의 모습인 것이다.

23) 이석우, 앞의 책, p.78.

3. 에로티시즘의 형상화

에로티즘은 사랑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의미했지만 일찍부터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의 뜻으로 전문화되었으며, 지금은 사랑과 에로티시즘과 음란·퇴폐 문화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²⁴⁾ 시에서는 에로티시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사물을 통해 비유적으로 형상화된다.

한국 현대시에서 에로티시즘을 시적 정신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시인은 30년대의 시인부락과 동인이었던 서정주와 오장환 그리고 50년대 시인인 송옥과 전봉건²⁵⁾이며, 정지용은 여성의 이미지를 통하여 에로티시즘을 작품화하였다.

시약시야, 네 살빛도
익을 대로 익었구나.

젓가슴과 붓그림성이
익을 대로 익었구나.

시약시야, 순하디 순하여 다오.
암사슴 처럼 뛰어 다녀 보아라.

- 「따알리아」 3, 4, 5연

이 시는 여성을 따알리아 꽃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따알리아’는 ‘다알리아’라고 흔히 말하는데 ‘달리아’의 잘못된 표현이다. 화자는 ‘달리아 꽃’처럼 정렬적인 사랑을 꿈꾸고 있다. 에로티시즘을 상징하는 ‘살빛’과 ‘젓가슴’으로 에로틱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익을 대로 익었구나’의 반복을 통해 성적 충동을 강렬하게 자극한다. ‘익었다’는 것은 성적 매력

24) 민용태, 『에로티즘 詩學』, 고려원, 1990, p.62.

25) 전미정, 『한국 현대시와 에로티시즘』, 새미, 2002, p.33.

을 발산하는 여성을 의미하며,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 충동을 느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연에서는 3연과 4연의 걱정적 감정이 순화된다. 그러나 ‘순하다, 순하여 다오’와 ‘암시슴’의 비유는 아이러니이며 역설이다. “어서 먹어라 / 말만치 커기는 처녀야 / 서걱 서걱 먹어라.”(『女弟子』)²⁶⁾, “수수한 寡婦 흰얼굴”(『호랑니비』), “해바라기는 첫시약시 인데 /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 고개를 아니 든다.”(『해바라기 씨』)도 마찬가지이다.

청순하고 순수한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더욱 강렬한 성적 충동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은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피다 못해 터져 나온 따알리아”가 된다. 성적 본능을 꽃에 비유하여 드러낸 것이며, 성숙한 여성의 몸을 통하여 에로티시즘을 형상화한 것이다.

시 『石榴』에서는 여성에게 “자근아씨야, 가녀린 동무야, 남몰래 깃들인 / 네 가슴에 조름 조름 옥토끼 한쌍.”이 되자고 한다. ‘남몰래 한쌍’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사랑을 하자는 것이다. 석류는 성적 매력을 지닌 여성을 상징한다. 석류의 향기와 맛은 육체적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석류의 비유를 통해 비밀스런 육체적인 사랑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산앓 새는 산으로,
들녘 새는 들로,
산앓 색씨 잡으로
산에 가세.

작은 재를 넘어 서서,
큰 봉에 올라 서서,

『호 - 이』

26) 이순옥, 앞의 논문, p.67.

「호 - 이」

산엿 색씨 날래기가
표범 같다.

치달려 다러나는
산엿 색씨,
활을 쏘아 잡었습나?

아아니다,
들녁 사내 잡은 손은
참아 못 놓더라.

산엿 색씨,
들녁 쌀을 먹였더니
산엿 말을 잊었습데,

들녁 마당에
밤이 들어,

활 활 타오르는 화투불 넘어
넘어다 보면 —

들녁 사내 선웃음 소리.
산엿 색씨
얼골 외락 붙었더라.

- 「산엿 색씨 들녁 사내」 전문

인용한 시는 총 10연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인 ‘산엿 색씨’의 심리 변화를 통하여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1연에서 3연까지는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장면이다. 여성을 유혹하기 위한 남성의

모든 행위를 “호-이 호-이”라는 짧은 의성어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언어라기보다 소리(음성)이다. 발정기의 동물이나 곤충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내는 소리를 연상시킴으로써 남성의 모든 구애의 행위를 완벽하게 형상화하였다. 4연에서는 남성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여성을 표범에 비유하여 처녀성을 간직하려는 강한 자의식을 나타내었다.

5연에서는 어떻게 표범 같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해 묻는다. “활을 쏘아 잡았습나?”의 의문형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애를 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사랑을 얻은 남성에게 대한 부러움을 담고 있다. 또한 사랑의 순수성을 의심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활’은 남성의 힘을 상징하므로 힘에 의해 강요된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한다. 이러한 부정은 그들의 사랑이 어떤 힘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6연에서는 남성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성의 복합 심리를 보여준다. “들녀 사내 잡은 손은 / 참아 못 놓더라.”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남성에게 복종하고 싶어 하며, 강력한 힘을 가진 남성에게 소속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²⁷⁾ 그러므로 여성은 손을 놓지 못한다.

7연에서 ‘산엿 색씨’는 ‘들녀 남성’을 의지하며, 정신적인 사랑을 이루었다. 8연에서 10년까지는 그들의 육체적 사랑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육체적인 사랑은 ‘화투불’처럼 타오른다. ‘밤’(검은 색)과 ‘화투불’(붉은 색)의 대비를 통해 강렬한 육체적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성은 얼굴을 붉히는 것이다.

산은 남성을 상징하고 들은 여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산이 들보다 폐쇄적이므로 순결한 처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며, 들은 풍요를 상징하므로 남성이 경제적인 모든

27) 마광수, 『시학』, 철학과 현실사, 1997, p.24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으로 비유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시 「붉은 손」에서도 나타난다.

엇깨가 들글고
머리공간이 칠칠히,
산에서 자라거니
이마가 알빛 같이 희다.

검은 버선에 흰 보을 받아 신고
산과일처럼 얼어 붉은 손,
길 눈을 헤쳐
돌 틈에 트인 물을 따내다.

한줄기 푸른 연기 올라
집웅도 해사살에 붉어 다시롭고,
처녀는 눈 속에서 다시
碧梧桐 중허리 파릇한 냄새가 난다.

수집어 돌아 앉고, 철아닌 나그네 되어,
서려오르는 김에 낮을 비추우며
동 틈에 이상하기 하늘 같은 샘물을 기웃거린다.

- 「붉은 손」 전문

이 시는 물을 걷는 산골 처녀의 모습과 이성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처녀의 심리를 형상화하였다. 1연과 2연은 산골 처녀의 순수한 모습을 리얼하게 형상화하여 성적 충동을 자극한다. ‘산과일처럼 얼어 붉은 손’은 표면적으로 처녀의 고단한 삶을 나타내지만 심층적으로는 남성이 언 손을 녹여 주기를 바라는 처녀의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처녀는 “碧梧桐 중허리 파릇한 냄새”를 풍기며 우물가에 앉아

“철 아닌 나그네”를 기다린다. ‘파릇한 냄새’는 성숙한 여성에게서 풍겨오는 야릇한 향기를 시각과 후각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처녀가 성적 매력을 지닌 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물은 여성을 상징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는 행위는 성행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처녀는 성적 호기심으로 “돌 틈에 이상하기 하늘 같은 샘물을 기웃”거리고 있다. 결국 ‘붉은 손’은 여성의 성적 충동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신체를 통한 에로티시즘의 표출은 “甘藍 포기처럼 싱싱한 / 기집아이의 다리”(『曲馬團』)로 형상화되었고, 기차를 의인화한 시 『爬蟲類動物』에서는 “그녀에게 / 내 童貞의結婚반지를 차지려갔더니만 / 그 큰 궁둥이로 썰밀어”로 나타난다. 여성의 엉덩이와 가슴은 에로티시즘의 상징이다. 그러나 엉덩이로 남성을 밀어내는 행위는 오히려 성욕을 사라지게 하며, 성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 등장하는 여성은 화류계의 여성이며, 화자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반감을 ‘그녀’로 표출한다.

시 『슬픈 汽車』에서는 여성의 붉어진 볼과 떨리는 입술로 에로티시즘을 형상화하였다. “靑만틀 깃자락에 마담 R의 고달픈 뺨이 붉으레 피었다, 고은 石炭불처럼 이글”거리고 있다. “마담 R”은 매우 관능적인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마담 R”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나”의 눈에 비친 주관적인 인상이며 실제 그녀의 뺨의 홍조는 고달픔에서 기인한 것이다.²⁸⁾ 그러나 ‘붉그레한 뺨’은 기차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남자의 망토 자락에 기대 부끄러움이며, 마지막으로 떠나는 이별 여행이 주는 안타까움이 성적 흥분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靑만틀 깃자락에 마담 R의 가여운 입술이 여태껏 떨고 있”으

28) 장만호, 『시적 방법으로서의 이항대립』, 최동호·맹문제 외, 『다시 읽는 정지용 시』, 월인, 2003, p.64.

며, 시적 화자는 “누나다운 입술을 오늘이야 싫것 절하며 갑노라”라고 하여 연상의 여성에게 느낀 성적 충동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이 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통하여 자극적이고, 강한 성적 흥분을 야기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은 시 전체의 아우라가 된다.

시 『카페 오프란츠』는 이국적이고 도시적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여 “鬱金香 아가씨는 이밤에도 / 更紗 커 — 틈 밑에서 조시는구료”라고 한다. 세 사람의 떠들썩한 행차에도, 울금향(鬱金香 : 튜립)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급은 늘어진 커튼 아래에서 졸고 있다. 어쩌면 이 청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여급이 바로 이 아가씨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본채도 하지 않고 졸고 있다.²⁹⁾ 카페의 손님인 남성과 카페의 아가씨인 여성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 졸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긴장의 해소를 의미한다. 여성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 긴장 관계를 해소한 것이다. 남성은 여성의 흐트러진 모습에서 보호 본능과 성적 충동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다. 『船醉 2』에서도 배멀미로 인해 흐트러진 여성을 “令嬢은 고독도 아닌 슬픔도 아닌” 모습으로 묘사한다. 그러므로 카페의 아가씨는 조는 척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성을 유혹하려는 것이다.

4. 순수한 동심의 상징

순수한 동심의 세계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을 담고 있으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심리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심은 순수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지혜를 써서 기교를 부리는 허위의 세계에서 벗어나 순박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³⁰⁾ 정지용은

29) 권영민, 앞의 책, p.251.

여성의 상징을 통해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구체화하였다. 이 시들은 주로 동요나 민요풍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딸레와 작은 아주머니

앵도 나무 미테서

쑥 쓰더다가

깨피씩 만들어

호. 호. 잠들여 노코

냥. 냥. 잘도먹었다.

중. 중. 썰썰중.

우리 얘기 상제 로 사갑소.

- 「딸레(人形)와 아주머니」³¹⁾ 전문

인용한 시에서 여성은 소꿉놀이를 하면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다. ‘아주머니’는 결혼을 한 여성을 통칭한다. ‘아주머니’가 인형을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주머니’는 정상적인 여성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작은’은 외형적으로는 키가 작다는 의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른이지만 지적 수준은 아직 어린 아이라는 의미이다.

30) 박준택, 『세계의 叢智』, 박영사, 1979, p.20.

31) 이 시의 시적 모티브를 확대하여 「三月삼짚날」과 「딸레」라는 두 편의 시로 개작한 것이 『정지용 시집』에 실렸다. 하나의 시 작품을 독립된 두 편의 시로 개작한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권영민, 앞의 책, p.423) 그러므로 이 책에는 「三月삼짚날」의 한 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지용 전집』¹에서는 이 시가 「三月삼짚날」과 「딸레」 두 작품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별편으로 실었다. (『정지용 전집』¹, 민음사, 2010, p.25) 본고에서는 『정지용 전집』¹에 따라 두 편을 별편으로 보았다.

소꿉놀이에 빠진 ‘작은 아주머니’는 현실을 초월한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 살고 있다. 순수한 동심 세계는 현실의 생활에서 점차 잊혀진다. “눈먼 딸레 찾으러 갔다 오니, / 쪼그만 아주머니 마자 / 누가 다려 갔네”(『딸레』)라고 하여 어른이 되면서 동심을 잃어버리고,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그러므로 ‘쪼그만 아주머니’는 현실의 삶에서 잃어버린 동심을 상징한다.

해바라기를 심자.
담모롱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밭로 다진다.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우리가 눈감고 한밤 자고 나면
이실이 내려와 가치 자고 가고.

- 『해바라기 씨』 1, 2, 3연

이 시는 총 6연으로 되어 있으며, 해바라기 씨를 심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누나’와 ‘바둑이(강아지)’, ‘괭이(고양이)’가 ‘참새’의 눈을 피해 해바라기 씨를 심는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작품화하였다. 동물을 의인화하여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노래한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은 누나이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누나는 동심의 상징이다.

이러한 동심의 상징은 소녀의 눈물로도 나타난다. “서러울리 없는 눈물을 少女처럼 짓자”(『海峽』)고 한다. 그러므로 생의 비애라는 것도 사춘기 소녀의 감상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³²⁾ 소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그저 감상에 불과하며, 소녀는 뺨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해맑게 웃을 것이

다. 소녀의 눈물은 순수한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시 『피리』에서는 “자네는 人魚를 잡아 / 아씨를 삼을 수 있나?”라고 묻는다. ‘인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여성이다. 그러므로 잡아서 ‘아씨’를 삼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 물음에는 무한한 상상력과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순수한 동심의 세계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아내에게 “楸子 열매 / 기름 내어 / 우리 孫子 방에 / 불을 키세”(『妻』)³³⁾라고 한다. 이것은 동심을 통하여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여성상을 가족애의 상징과 에로티시즘의 형상화, 순수한 동심의 상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정지용은 여성상을 통하여 현실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려고 한다. 그가 여성상을 작품화한 것은 현실도피나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가족애와 에로티시즘의 상징으로 형상화된 여성상은 무한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이것은 동심의 상징으로 구체화되어 순수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는 의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성상은 그가 노래한 자연과 고향의 이미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가족애를 상징하는 여성은 어머니, 아내, 누나, 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 『넋니약이』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아내, 어린 누이는 아들과 남편, 오빠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을 한다. 시 『鄉愁』에는 아내와 어린 누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에

32) 이승원, 앞의 책, 122.

33) 이순옥, 앞의 논문, p.65.

서 일을 하며, 남편은 이러한 아내에 대해 무한한 사랑과 연민의 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어린 누이는 순결한 처녀의 이미지로 가족의 사랑을 받는다.

가족의 죽음은 그리움이다. 시 「산소」에서는 죽은 누이가 꽃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염원하며, 「산에서 온 새」에서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눈에 아름 아름 보고 지고”라며 직접적으로 토로한다. 시 「종달새」와 「굴뚝새」는 새를 의인화하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가족애는 조국애로 승화되고, 어머니 사랑은 성모의 사랑으로 승화된다.

시에서 에로티시즘은 사물의 비유를 통해 형상화된다. 시 「따알리아」에서는 여성을 꽃에 비유하여 강렬한 성적 충동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익을 대로 익었구나’를 반복하여 여성에 대한 에로틱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한다. 「산엿 색씨 들녘 사내」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남성애에 대한 여성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형상화하였다.

시 「붉은 손」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성적 대상으로 한다. 산골 처녀의 붉은 손은 표면적으로는 고단한 삶을 의미하지만 심층적으로는 남성이 언손을 녹여 주기를 바라는 여성의 심정을 담고 있다. 「슬픈 汽車」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에로티시즘은 시 전체의 아우라가 된다.

순수한 동심의 세계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을 담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무한한 상상력과 동심의 세계를 상징한다. 시 「딸래와 아주머니」에서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주머니를 통해 동심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아주머니는 시 「딸래」에서 현실의 삶에서 잃어버린 동심을 상징한다. 시 「海峽」의 감상적인 소녀와 「피리」의 인어는 동심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동심의 세계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 「妻」에서 ‘불을 키세’라고 하여 동심을 통하여 고통스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권영민, 『정지용 詩 126편 다시 읽기』, 민음사, 2004.
정지용, 『鄭芝溶 全集』1, 민음사, 2010.
이순옥,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시 연구』, 『한국 문학 논총』 41집, 한국문학회, 2005, pp.64-67.

2. 단행본 및 논평

- 강현국, 『현대시에 나타난 『바다』의 연구 - 정지용 초기시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제4집, 문학과 언어학회, 1983.
고명수, 『정지용론』, 『한국 모더니즘 시인론』, 문학아카데미, 1995.
김은자, 『정지용 시의 現實과 悲哀』, 김은자 편, 『정지용』, 새미, 1996.
김학동, 『정지용』, 동아일보사, 1992, p.14.
마광수, 『시학』, 철학과 현실사, 1997, p.24
문덕수, 『정지용론』,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시문학사, 1981.
민용태, 『에로티즘 詩學』, 고려원, 1990, p.62.
박원순, 『정지용 시에 나타난 색채어 연구』, 『비평문학』 제24호, 한국비평문학회, 2006.
박준택, 『세계의 叡智』, 박영사, 1979, p.20.
손병희, 『정지용 시의 <밤>과 <램프> 분석』, 『문학과 언어』 제12집, 문학과 언어학회, 1991.
손종호, 『정지용 시 『나무』의 기호학적 분석』, 『문예 시학』 7집, 문예시학회, 1996.
이상오, 『정지용 초기시와 “바다” 시편에 나타난 자연 인식』, 『人文研究』 제49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이석우, 『정지용 평전 : 현대시의 아버지』, 충북학연구소, 2006.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연구』, 태학사, 1999.
———, 『정지용 시 『琉璃窓』 읽기의 반성』, 『문학교육학』 제16집, 역락, 2005.
장도준, 『정지용 시 연구』, 태학사, 1994, p.107.
장만호, 『시적 방법으로서의 이항대립』, 최동호 · 맹문재 외, 『다시 읽는 정지용 시』, 월인, 2003, p.64.

전미정, 『한국 현대시와 에로티시즘』, 새미, 2002, p.33

정유화, 『‘집-나무-산’의 공간기호체계 연구 - 정지용론』, 『우리 문학 연구』 제25집, 우리 문학회,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Woman in Jung Ji-Young's Poetry

Cho, Jae-Woong

The woman in Jung Ji-Young's poetry stands for familyhood and childish innocence, and is shaped into a eroticism. Familyhood is specified into a love for mother, wife, a boy's sister.

The woman symbolizing childish innocence is represented as a boy's sister, a girl, a housewife playing with toys. These are looking into the world with a pure mind, and they have an infinite imagination.

The woman shaped into a eroticism shows a sexual impulse strongly, simlized to a flower. And the woman reveals a sexual excitement in a roundabout way by way of the grown-up woman's psychological change.

Key-Words : Familyhood, Eroticisim, Childish innocence, Mother, Wife, Boy's sister

조제웅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12-83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715, 진량 휴먼시아 106동 1301호

전화번호 : 010-2046-2668, 070-8800-1881

전자우편 : cjjw@ynu.ac.kr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